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김인숙·이경님[†]

개림중학교 ·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Parent Attachment, Peer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Kim, In-suk · Lee, Kyung-Nim[†]

Gaerim Middle School ·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peer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591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he first and third grade of the middle school and their mothers in Busan.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 Scale, Peer Support Scale and Behavior Checklist for Adolesc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first grade students had stronger attachment on father and mother than third grade. The third grade students had perceived peer support more than first grade. Female students had stronger attachment on mother and perceived peer support more than male student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sex difference in attachment on father.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creased grade. But,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there was no grade difference i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 the case of first grade students, there was no sex difference in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 the case of first grade students, males had more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an females. But in the case of third grade students, females had more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an males.

2. As parent's education level was higher, students had stronger attachment on parents and perceived more peer support. As family income was higher, students had stronger attachment on father and perceived more peer support.

3. In case of female students, parent attachment and peer support were correlated negatively wi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 case of male students, attachment on fathers and peer

[†] Corresponding author : H.P : 019-567-2605, e-mail : knlee@daunet.donga.ac.kr

support were correlated negatively with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ttachment on mother and peer support were negatively with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peer support, behavior problems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새로운 적응을 요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외모와 생리적 기능이 성인과 유사해지고 논리적,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며 사회관계가 확대되는 등 발달적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학교생활,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수행 압력이 증가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려 하여 갈등과 혼돈을 겪게 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시기 동안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발달과 함께 독립의 욕구가 증가하는 동시에 초등학교 시기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에 대처해야 하므로 생의 어느 시기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응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모든 중학생이 이러한 적응적 요구를 잘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의 부적응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적응 문제는 여러 행동상의 문제를 표출하게 된다. 행동문제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정서적 부적응을 의미하며 발달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특성이라 정의된다(김선희, 2000). 행동문제는 크게 외재적 행동문제와 내재적 행동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오경자, 이해련, 1990; Achenbach, 1991).

외재적 행동문제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한 공격성 행동, 다행동, 비행 등이 포함된다. 내재적 행동문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보다 자신의 심리적 고통이 더 문제인 것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불안,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행동 문제가 적응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부각되고 있어 청소년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권영옥, 이정덕, 1999; 김선희, 김경연, 1998; 이경주, 신호식, 1998; 이선경, 1997; Chen, Rubin & Li, 1997)가 축적되고 있다. 이들 관련변인들을 고찰해보면,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는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친구변인이 가장 빈번히 지적되고 있었다.

먼저 부모자녀관계 변인의 기본적 토대는 애착을 통하여 설명된다. 애착의 초기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아동이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애착이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감, 유대감을 형성하여 안정된 애착을 가질 때 부모를 안전기지로 삼고, 어려운 일도 원만히 해결하여 긍정적으로 발달하며 적응하게 된다.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장휘숙, 1997; Armsden & Greenberg, 1987) 또한 청소년의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적 행동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오송희, 1998; Allen, Moore, Kupermine & Bell, 1998). 최근 들어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지지가 청소년의 비행이나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 등의 외재적 행동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연구

(부선회, 1999; 심희옥, 1998)도 청소년들의 외재적 행동문제에 부모에 대한 애착이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행동문제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생애 발달적인 측면에서 애착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전 생애 동안 지속적인(Cohn, 1990)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자녀관계 변인 외에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친구 변인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교사와의 관계보다 친구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며 친구로부터 수용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바람직한 적응을 보이지만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지지받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다양한 행동문제의 경향을 보인다(이춘제, 박금주, 2000). 실제로 친구로부터의 적절한 정서적 지지나 지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연구들(심희옥, 1998; 한미현, 1996; Bagwell, 1998)은 계속 축적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적 행동문제, 공격성, 과다행동,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재적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적 행동문제가 감소되며 공격성, 과다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재적 행동문제도 적게 표출되므로 친구의 지지는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의 지지는 행동문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친구지지를 함께 고려하여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

다.

다른 한편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검토할 때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 접근은 고려되어야 할 변인임이 지적되고 있다(김선회, 2000; 이경주, 1997). 즉 외재적 행동문제는 남아에게 내재적 행동문제는 여아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관계에서도 성차가 있음이 보고(이경주, 1997)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녀 중학생을 구분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의 상호관계를 규명함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토대로 청소년 초기인 중학생 시기 동안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의 지지 및 행동문제에 대한 발달경향 및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남녀 중학생을 구분하여 중학생의 행동문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 및 친구지지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내재적, 외재적)는 학년(1학년, 3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는 부모의 학력,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남녀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친구지지는 행동문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에 대한 애착

애착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과 대인관계의 적응의 기초가 되므로 발달심리학에서 많은 관

심을 모으고 있다. 애착은 한 개인이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뜻한다(송명자, 1995; Bowlby, 1969).

애착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Bowlby(1969)에 의하면 어머니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어머니를 신뢰할 수 있고 어머니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며, 이러한 안정감은 영아가 어머니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일으킨다. 영아의 이러한 욕구가 어머니로부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충족되면 영아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영아와 어머니의 안정된 애착은 영아의 정서적 안정감,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나아가 인지발달에도 도움이 된다(송명자, 1995).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아동기나 청소년 이후 성인기 발달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Bowlby(1973)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해 설명된다. 내적작동모델이란 영아가 생후 1년간 양육자와의 반복되는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작동모델을 형성한다는 것이다(부선희, 1999). 즉, 영아와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여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면 어머니를 신뢰하고 자신은 가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영아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거부하고 무시한다고 느끼는 불안정 애착 아동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자신은 무가치하다는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은 아동기나 청소년 나아가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관계 등 전 생애에 걸쳐 타인과의 관계에 작용하는 기본적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생애 발달적인 관점에서 최근에는 청년기의 애착과 발달,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부선희, 1999; 오송희, 1998; Armsden & Greenberg, 1987).

최근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아버지 애착과 아동 및 청소년 발달과 적응에 관한 보고도 나타나고 있다(Elkind & Weiner, 1978).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아동에게 형성하는 애착의 모

습은 어머니와 아동의 애착관계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즉, 어머니는 아동을 돌보아 주고 안정감을 주는 반면 아버지는 주로 같이 놀아주는 모습을 보인다(Parke, 1990).

그러나 청소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오송희, 1998). 첫째,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ernberg, 1986). 둘째,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변화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Bretherton & Weiss, 1985). 셋째, 청소년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Paterson et al, 1994). 즉, 남녀 청소년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안정되거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낮아진다고 본다. 국내에서는 오송희(1998)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걸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대한 배경변인의 차이에 관한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오송희(1998)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모두에게 높은 애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학력은 부모 애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걸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하며 그 결과들도 일관성이 없고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친구의 지지

우리 개인은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혹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타인들로부터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음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

상황에서 타인들로부터 받은 인정, 사랑이나 물질적 원조 등을 받는 실제적, 정서적 지지를 말한다(송명자, 1995). 아동이나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가족, 교사, 친구로부터의 지원이 될 수 있다(한미현, 1996).

아동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동안 청소년은 가족과 교사보다는 친구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시간을 보냄에 따라 친구지지를 더 중요한 지지의 원천으로 본다. 청소년은 친구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바람직한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청소년기에 친구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로는 청소년기에 친구관계의 비중이 커지며 친구의 영향력이 커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친구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친구지지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바람직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친구지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며(이경주, 1997; 한미현, 1996) 학업성취의 향상과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된다(Ladd, 1983).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은 자아개념과 인지발달에도 기여하며 이는 성인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Bagwell, 1998). 친구지지에 대한 청소년의 발달적 차이를 본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아동기의 친구지지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미현, 1996)에서 아동 후반기 동안 친구지지의 연령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친구지지의 학년차이를 밝힌 연구(강민주, 1993)에서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친구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지지에 대한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동안은 성차가 없다는 연구(한미현, 1996; 강민주, 1993)와 성차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Bryant, 1985)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대한 친구지지를 살펴본 연구를 검토하면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계소득이 높

을수록 아동이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한미현, 1996)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친구지지는 높으나 어머니의 학력과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다는 연구(이경주, 1997)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친구지지에 대한 학년, 성차 및 배경변인의 차이에 대한 일관성 없는 연구결과들은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3. 행동문제

오늘날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형적으로 행동문제는 발달적 병리와 임상적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며 일반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서는 그 빈도가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반 아동이나 청소년이 보이는 다양한 행동문제와 심각성이 발달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서는 정상 아동의 6~20%가 정서 및 부적응의 행동문제를 보이며(Anderson, William, McGee & Silva, 1987) 우리나라에서도 10% 정도가 정서적 부적응이나 행동문제의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이혜련, 오경자, 홍강의 이은혜, 1992). 지금까지 행동문제의 개념은 다양하며 일치된 정의는 없다.

김선희, 김경연(1998)에 의하면 행동문제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로 정의된다. 행동문제는 다양한 행동특성을 포함하나 그 특성에 따라 그 하위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크게 내재적 행동문제와 외재적 행동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김선희, 2000). 내재적 행동문제는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내면적인 심리적 고통이 특징이다. 반면 외재적 행동문제는 공격행동, 과다행동, 비행행동이 포함되며 자신의 욕구나 충동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김선희, 2000).

청소년의 학년과 성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

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아동을 포함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4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문제의 학년별 성 차이를 살펴본 연구(한미현, 1996)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 6학년 학생보다 과다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나 불안, 위축, 공격, 미성숙 행동문제는 4학년과 6학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위 연구에서 불안행동, 위축행동과 같은 내재적 행동문제에서 남아보다 여아에서 더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문제의 학년과 성 차이를 살펴본 연구(서선주, 1999)에 의하면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에 비해 위축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 불안, 과다행동, 미성숙과 공격 행동문제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불안 행동문제는 많았으나 그 외 영역의 행동문제는 남아와 여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행동문제에서 성 차이를 밝힌 연구(이경주, 1997)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공격적 행동문제를 더 많이 표출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 위축을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경주(1997)의 연구는 아버지의 학력이 남학생의 내재적 행동문제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외재적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대상으로 한 한미현의 연구(1996)에서는 아버지의 학력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의 지지, 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

구들은 행동문제가 왜 나타났는가에 관심을 가졌으며 일차적으로는 가족환경에서 그 근원을 찾고자 하였다. 가족환경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빈번히 다루어지는 변인이었다. 부모자녀 관계의 기초는 청소년과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안정감과 신뢰감을 얻고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면 심리적 안녕과 발달에 도움을 준다(장휘숙, 1999).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행동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송희(1998)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낮아짐을 보고하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선희(1999)와 김영혜(1999)는 청소년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신뢰감이 높고 소외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성향이 낮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재인(1999)도 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고 잘 적응하며 학업성취도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장휘숙(1997)은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정된 애착양식을 갖는 여자 청소년들이 MMPI의 영역 대부분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여 애착이 높은 청소년들이 정신 병리적 경향성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Allen(1998) 등도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낮으며 불안도 낮음을 밝히고 있으며 Armsden & Greenberg(1987)도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과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행동문제의 일치된 결과는 청소년이 부모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가지며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부모를 안전기지로 삼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생활할 때 행동문제가 완화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부모자녀 관계변인과 더불어 친구지지도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는 연구들이 축적

되고 있다. 지금까지 친구지지가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미현(1996)은 아동이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적 행동문제와 공격행동의 외재적 행동문제와 미성숙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김선희(2000)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친구로부터 수용되고 지지를 받는 여아가 외재적 행동문제가 적게 표출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경주(1997)도 청소년기에 여학생의 내재적 행동문제에 친구지지가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심희옥(1998)도 아동과 청소년이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이나 반사회적 행동문제가 적게 표출됨을 밝히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문은영과 윤진(1994)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로부터 무시되는 집단이 고독감과 사회적 불안을 많이 느끼고 배척집단은 비행경향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친구지지와 행동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외재적, 내재적 행동문제에 친구지지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친구지지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함께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지지를 함께 고려하여 청소년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청소년의 외재적, 내재적 행동문제를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각 행동문제에 대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하는 4개 중학교 남녀 1학년과 3학년 중학생과 그들의 어머니 591쌍이다. 연구대상 청소년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들의 학년별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중

학교 1학년 287명(48.56%), 3학년 304명(51.44%)이었으며 남학생 306명(51.77%), 여학생 285명(48.22%)이었다. 연구대상 중학생의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 268명(45.3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졸이상이 252명(42.64%)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 337명(57.0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졸이상이 151명(25.55%)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151만원~250만원이 220명(37.23%)으로 가장 많았으며 150만원 이하 198명(33.50%), 251만원 이상 173명(29.27%)으로 나타났다.

<표 1> 중학생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	306	51.77
	여	285	48.22
학년	중1년	287	48.56
	중3년	304	51.44
아버지의학력	중졸이하	71	12.01
	고 졸	268	45.35
	대졸이상	252	42.64
어머니의학력	중졸이하	103	17.43
	고 졸	337	57.02
	대졸이상	151	25.55
가계소득	150만원 이하	198	33.50
	151만원~250만원	220	37.23
	251만원 이상	173	29.27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중학생용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 친구지지 척도이며 어머니용으로는 행동문제 척도와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가)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 부모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래의 검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부모 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여 각각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한 Patterson, Field 그리고 Pryor(1994)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로 응답되며 부정문항들은 역산되었다.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PPA는 초기 청소년기에서 후기 청소년기 즉, 중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온 애착 척도들 가운데 하나로서 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 .90, 아버지에 대한 애착 .92로 나타났다.

나) 친구지지 척도

친구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1996)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친구지지 8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지지를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은 친구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다) 행동문제 척도

행동문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1991)가 개발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를 근거로 오경자, 이해련(1990), 홍경자(1986), 김명숙(1994)의 척도를 참고하여 이경주(1997)가 제작한 중학생용 행동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재적 행동문제의 우울성, 사회적 위축성, 과잉불안의 3개 요인과 외재적 행동문제의 공격성, 비행성, 과잉 활동성의 3개 요인으로 각 4문항씩 24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행동문제 표출정도에 따라 3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행동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척도의 신뢰도는 내재적 행동문제 Cronbach's α 는 .76, 외재적 행동문제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연구대상 중학생의 사회경제적인 분포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성을 고려하여 부산시의 4개 교육구청을 무선으로 선정하고 이들 교육구청에 속하는 중학교 각 1개교의 1학년과 3학년의 3학급씩 모두 24학급을 표집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각 반 담임선생님께 연구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한 뒤 조례시간에 중학생용 질문지는 배부, 회수되었고 어머니용 질문지는 학생 편으로 배부하고 1주일 내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기재 되었거나 어머니용과 중학생용의 쌍이 맞지 않는 자료는 제외하고 591쌍이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척도의 신뢰도를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은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하고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단순 주효과 검증을 하였다. 연구문제 2는 일원변량분석과 추후검증으로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은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적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중학생의 학년과 성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 및 행동문제가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 및 행동문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학년과 성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 및 행동문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1년 M(SD)	중3년 M(SD)	계 M(SD)
부애착	남	90.99(16.52)	86.60(17.47)	88.97(17.08)
	여	90.32(16.96)	83.75(19.01)	86.57(18.43)
	계	90.70(16.68)	85.07(18.34)	87.81(17.77)
모애착	남	94.05(14.22)	90.27(13.14)	92.31(13.85)
	여	97.32(14.06)	93.99(15.76)	95.41(15.13)
	계	95.43(14.22)	92.26(14.70)	93.81(14.55)
친구지지	남	27.93(4.68)	28.82(4.90)	28.35(4.80)
	여	28.80(4.62)	29.91(4.45)	29.44(4.56)
	계	28.30(4.67)	29.41(4.69)	28.87(4.71)
내재적 행동 문제	남	16.02(3.08)	16.00(3.43)	16.01(3.24)
	여	15.77(2.92)	17.58(3.76)	16.81(3.54)
	계	15.91(3.01)	16.85(3.69)	16.40(3.41)
외재적 행동 문제	남	15.37(2.99)	14.95(3.08)	15.18(3.04)
	여	14.53(2.06)	15.92(3.03)	15.33(2.74)
	계	15.01(2.66)	15.47(3.09)	15.25(2.90)

<표 2>에서 나타난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 및 행동문제 점수가 중학생의 학년과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학년과 성에 따른 부애착, 모애착과 친구지지 및 행동문제의 이원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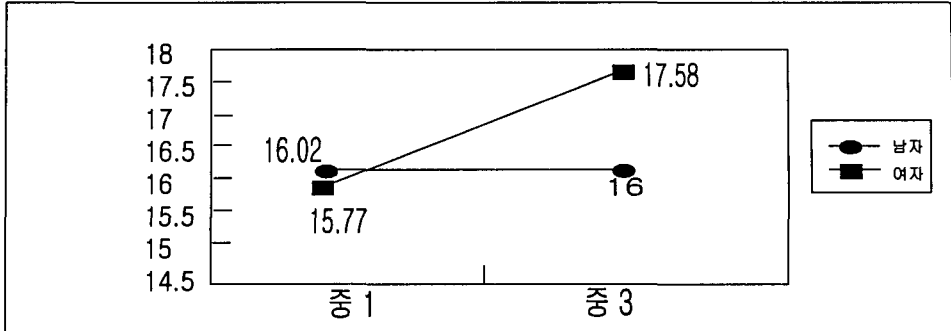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부애착	학 년	4369.17	1	4369.18	14.17***
	성	447.81	1	447.81	1.45
	학년×성	174.22	1	174.22	.57
	오 차	180952.80	587	308.27	
모애착	학 년	1828.70	1	1828.70	8.83**
	성	1772.70	1	1772.70	8.56**
	학년×성	7.51	1	7.51	.36
	오 차	121618.98	587	207.19	
친구지지	학 년	145.72	1	145.72	6.69*
	성	138.10	1	138.10	6.34*
	학년×성	1.77	1	1.77	.081
	오 차	12781.39	587	21.77	
내재적 행동 문제	학 년	117.13	1	117.13	10.52**
	성	64.87	1	64.87	5.83*
	학년×성	123.55	1	123.55	11.09**
	오 차	6536.94	587	11.14	

외재적 행동 문제	학 년	성	학년×성	오 차
	34.61	.58	119.45	4807.93
	1	1	1	587
	34.61	.58	119.45	8.19
	4.23*	.07	14.58***	

*p<.05 **p<.01 ***p<.001

<표 3>에 의하면 중학생의 부에 대한 애착은 학년의 주효과[F(1, 587)=14.1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1학년이 3학년보다 아버지에 대하여 더 높은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성에 대한 주효과[F(1, 587)=1.45, p>.05]와 학년과 성의 상호작용효과[F(1, 587)=.57, p>.05]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 3>에 의하면 중학생의 모에 대한 애착은 학년의 주효과[F(1, 587)=8.83, p<.01]와 성의 주효과[F(1, 587)=8.56,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1학년이 3학년보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에 대하여 더 높은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에 대한 애착은 중학생의 학년과 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F(1, 587)=.36,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생의 친구지지는 학년의 주효과[F(1, 587)=6.69, p<.05]와 성의 주효과[F(1, 587)=6.34,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1학년보다 3학년이 또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친구에 대한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학생의 친구에 대한 지지는 학년과 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F(1, 587)=.081,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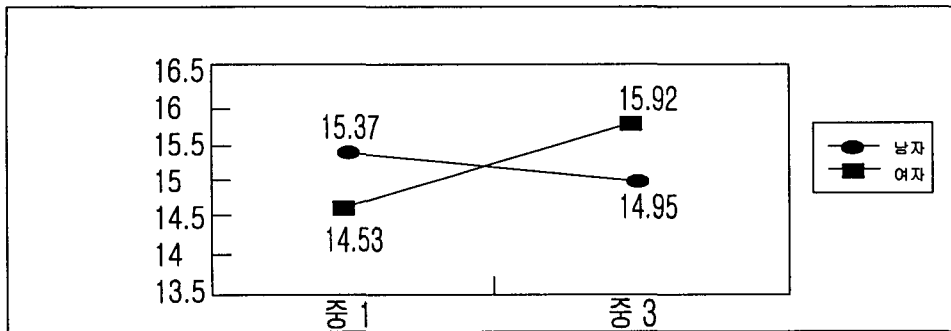
또한 <표3>에 의하면 중학생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학년[F(1, 587)=10.52, p<.01]과 성[F(1, 587)=5.83, p<.05]의 주효과 및 학년과 성의 상호작용효과[F(1, 587)=11.09,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내재적 행동문제에 대한 학년과 성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을 보면 중학생의 내재적 행동문제의 점수는 성에 따라 학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성별, 1학년과 3학년의 행동문제 점수를 단순주효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1학년과 3학년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유의한 차이[t=.07, 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 1학년과 3학년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유의한 차이[t=-4.48, p<.001]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1학년과 3학년 간 변화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1학년보다 3학년이 내재적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림 1>에 의하면 중학생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학년에 따라 성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면밀히 분석

하기 위해 학년별 성차의 내재적 행동문제를 단순 주효과 검증하였다. 그 결과 1학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유의한 차이[t=.71, 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3학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유의한 차이[t=-3.82, p<.001]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1학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3학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3>에 의하면 중학생의 외재적 행동문제는 학년[F(1, 587)=4.23, p<.05]의 주효과와 학년과 성의 상호작용효과[F(1, 587)=14.58,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외재적 행동문제에 대한 학년과 성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를 보면 중학생의 외재적 행동문제의 점수는 성에 따라 학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성별, 1학년과 3학년의 행동문제 차이를 단순주효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1학년과 3학년의 외재적 행동문제는 유의한 차이[t=1.20, 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 1학년과 3학년의 외재적 행동문제는 유의한 차이[t=-4.38, p<.001]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외재적 행동문제는 1학년과 3학년 간의 변화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1학년보다 3학년의 외재적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림 2>에 의하면 중학생의 외재적 행동문제는 학년에 따라 성별차이가 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학년별 성차의 외재적 행동문제 점수를 단순주효과 검증하였다. 그 결과 1학년[t=2.68, p<.01]과 3학년[t=2.76, p<.01] 모두 외재적 행동문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외재적 행동문제는 1학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았으나 3학년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학력, 가계소득에 따른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와 행동문제

가)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사후검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의 일원변량분석결과

	학 력	평균(표준편차)	F	Duncan
부애착	중졸이하	83.56(18.07)	6.49**	a
	고 졸	86.24(17.95)		a
	대졸이상	90.68(17.09)		b
모애착	중졸이하	91.21(13.42)	3.27*	a
	고 졸	92.94(14.29)		a
	대졸이상	95.46(14.99)		b
친 구 지 지	중졸이하	27.83(5.29)	7.17**	a
	고 졸	28.38(4.74)		a
	대졸이상	26.69(4.39)		b
내재적 행동 문제	중졸이하	16.70(3.40)	2.08	
	고 졸	16.63(3.47)		
	대졸이상	16.07(3.33)		
외재적 행동 문제	중졸이하	15.80(3.35)	2.02	
	고 졸	15.31(2.60)		
	대졸이상	15.31(3.05)		

*p<.05 **p<.01

<표 4>에 의하면 중학생의 부애착[F(1, 587)=6.49, p<.01], 모애착[F(1, 587)=3.27, p<.05]과 친구지지[F(1, 587)=7.17, p<.01]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Duncan 사후검증한 결과 고졸이하 대졸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높고 친구에 대한 지지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중학생의 내재적[F(1, 587)=2.08, p>.05], 외재적[F(1, 587)=2.02, p>.05] 행동문제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학생의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사후검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의 일원변량 분석결과

	학력	평균(표준편차)	F	Duncan
부애착	중졸이하	82.57(18.42)	8.93***	a
	고 졸	87.53(17.88)		b
	대졸이상	91.99(16.07)		c
모애착	중졸이하	90.72(14.71)	4.52*	a
	고 졸	93.64(14.34)		a
	대졸이상	96.25(14.57)		b
친구 지지	중졸이하	28.07(5.02)	5.49**	a
	고 졸	28.65(4.74)		a
	대졸이상	29.90(4.28)		b
내재적 행동문제	중졸이하	16.40(3.34)	.29	
	고 졸	16.47(3.51)		
	대졸이상	16.21(3.24)		
외재적 행동문제	중졸이하	15.82(3.26)	2.53	
	고 졸	15.17(2.59)		
	대졸이상	15.04(3.25)		

*p<.05 **p<.01 ***p<.001

<표 5>에 의하면 중학생의 부애착[F(1, 587)=8.93, p<.001], 모애착[F(1, 587)=4.52, P<.05]과 친구지지[F(1, 587)=5.49, p<.01]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 사후검증한 결과 부애착은 중졸이하, 고졸 및 대졸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애착과 친구지지는 고졸이하와 대졸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높고 친구에 대한 지지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중학생의 내재적[F(1, 587)=.29, p>.05], 외재적[F(1, 587)=2.53, p>.05]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학생의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가계소득에 따른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가계소득에 따른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

우 Duncan 사후검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가계소득에 따른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가계소득	평균(표준편차)	F	Duncan
부애착	150만원 이하	83.82(17.93)	8.16***	a
	151만원-250만원	89.05(17.01)		b
	251만원 이상	90.80(17.80)		b
모애착	150만원 이하	92.54(13.84)	1.48	
	151만원-250만원	93.90(13.59)		
	251만원 이상	95.14(16.36)		
친구 지지	150만원 이하	28.38(4.71)	5.02**	a
	151만원-250만원	28.58(4.61)		a
	251만원 이상	29.82(4.73)		b
내재적 행동문제	150만원 이하	16.66(3.38)	1.63	
	151만원-250만원	16.45(3.59)		
	251만원 이상	16.03(3.19)		
외재적 행동문제	150만원 이하	15.56(3.00)	2.48	
	151만원-250만원	15.26(2.91)		
	251만원 이상	14.89(1.74)		

p<.01 *p<.001

<표 6>에 의하면 중학생의 부애착[F(1, 587)=8.16, p<.001], 친구지지[F(1, 587)=5.02, p<.01]는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Duncan 사후검증한 결과 부애착과 친구지에서 가계소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중학생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더 높고 친구에 대한 지지도 높게 지각하였다. 그런데 중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F(1, 587)=1.48, p>.05]은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학생의 내재적[F(1, 587)=2.48, p>.05], 외재적[F(1, 587)=2.48, p>.05] 행동문제는 가계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학생의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는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중학생의 부애착, 모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와의 관계

중학생의 부애착, 모애착, 친구지지와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표 7> 여중학생의 부애착, 모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의 상관관계결과

	내재적 행동문제	외재적 행동문제
부애착	-.22***	-.26***
모애착	-.16**	-.33***
친구지지	-.19**	-.12**

p<.01 *p<.001

<표 7>에 의하면 여학생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r=-.22, p<.001$), 어머니에 대한 애착($r=-.16, p<.01$), 친구지지($r=-.19,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또한 친구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내재적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학생의 외재적 행동문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r=-.33, p<.001$), 아버지에 대한 애착($r=-.26, p<.001$), 친구지지($r=-.12,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또한 친구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외재적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남중학생의 부애착, 모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의 상관관계결과

	내재적 행동문제	외재적 행동문제
부애착	-.12*	-.11
모애착	-.07	-.17**
친구지지	-.22**	-.17**

*p<.05 **p<.01

또한 <표 8>에 의하면 남학생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r=-.12, p<.05$), 친구지지($r=-.22,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또한 친구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내재적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남학생의 외재적 행동문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r=-.17, p<.01$), 친구지지($r=-.17,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

다. 즉 남학생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또한 친구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외재적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초기 청소년 동안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 및 행동문제의 발달경향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남녀 중학생을 구분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지지가 행동문제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3학년이 1학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기 동안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장휘숙, 1997; Sternberg & Silverberg, 1986)와 일치하였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걸쳐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오송희, 1998)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의 일치로 청소년 초기의 중학생 시기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독립된 판단과 행동을 하고자 하여 부모로부터 소원하게 되는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학생의 친구에 대한 지지는 1학년보다 3학년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동안 또래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장휘숙, 1997)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중학교 시기 동안 청소년들은 친구의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걸쳐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낮아지나 친구지지는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관계에 대한 중요성보다 친구관계에 더 비중을 두며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와 함께 오히려 또래로부

터 더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청소년의 특성이라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친구지지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오송희, 1998)와 친구지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이경주, 1997)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높고 친구에 대한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더 원하는 한편 또래로부터의 지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학생의 행동문제는 학년과 성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는 1학년과 3학년 간에 변화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1학년보다 3학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춘기를 경험하는 중학교 시기 동안 여학생과 남학생의 행동문제변화는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여학생의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가 1학년에 3학년에 걸쳐 더 많아진 이유로는 여학생은 이 시기에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급격한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의 학업적, 사회적 과업수행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여학생은 행동문제가 내재적으로는 불안하고 우울하며 위축되고 외재적으로는 더 공격적이고 과다행동을 많이 표출하며 심지어는 비행의 경향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사춘기가 1~2년 늦게 시작되므로(송명자, 1995) 중학교 시기 동안은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1학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3학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외재적 행동문제는 1학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았으나 3학년의 경우 남학생보

다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히려 사회적 위축은 남학생이 더 높으며 우울과 공격성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난 결과(이경주, 199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아는 내재적 행동문제가 많으며 남아는 외재적 행동문제가 많다는 선행연구(김선희, 2000)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행동문제에 대한 학년별 성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로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춘기 및 심리적 경험의 시기적 차이로 설명될 수 있지 않나 한다. 그러나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에 대한 중학생의 학년과 성 차이를 본 선행연구는 부족하므로 이에 관련된 후속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일반화된 결과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친구에 대한 지지 지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고(오송희, 1998)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지지 지각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이경주, 1997)의 결과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에 대한 지지 지각 차이를 본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높은 학력이 자녀와의 긍정적 의사소통과 더불어 자녀에게 신뢰감과 유대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가계소득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친구지지 지각과는 관계가 있었으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차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계소득에 따른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에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의 결과(이경주, 1997)와는 일치하지 못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와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의 관계는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고 친구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내재적, 외

재적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학생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낮고 친구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내재적 행동문제가 더 많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고 친구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외재적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여학생의 외재적, 내재적 행동문제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지지 모두와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친구지지는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 모두와 관계있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내재적 행동문제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외재적 행동문제와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1학년이 3학년보다 더 높고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1학년이 3학년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친구에 대한 지지는 1학년보다 3학년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중학생의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는 남학생의 경우 1학년과 3학년간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는 1학년보다 3학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1학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3학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외재적 행동문제는 1학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았으나 3학년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높고 친구지지도 더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중학생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더 높고 친구에 대한 지지도 더 높게 지각하였다. 그런데, 중학생의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셋째,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친구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내재적,

외재적 행동문제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또한 친구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내재적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또한 친구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외재적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지지를 선정하고 이들 변인들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학생의 기질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 및 좀 더 다양한 환경 변인이 포함된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행동문제는 부모 평가용이었으나 행동문제에 대한 중학생의 자기보고도 병행되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청소년의 경우 많은 시간을 가정 외의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청소년이 지각한 행동문제도 중요하므로 어머니 평가를 포함한 청소년이 지각한 행동문제도 함께 측정되어 행동문제와 관련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 투고일 : 2004년 5월 22일

참고문헌

강민주(1993).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 지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영옥,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김명숙(1994). 운동이 시각 장애인의 보행형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탐색.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 김경연(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척도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영혜(1999). 청소년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성희, 이재연(1992).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의 스트레스 완충효과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2), 175-188.
- 문은영, 윤진(1994). 또래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7(1), 44-63.
- 부선희(1999). 애착,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비행경향성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선주(1999).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3), 97-106.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심재인(1999). 청소년의 감성지능과 초기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 적응행동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1998).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가족, 친구의 지원 및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6), 11-22.
- 오경자, 이혜련(1990). 아동 청소년 문제행동평가 척도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29(2), 452-462.
- 오송희(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 광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1), 65-79.
- 이경주, 신효식(1998). 청소년기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유형과 부적응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6(8), 39-49.
-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경(1997).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 학지사.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경자(1986).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양상도형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chenbach, T.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1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Vermont.
- Anderson, J., Williams, S., McGee, R., Silva, P.(1987). "DSM-III disorders in preadolescent children; Prevalence in large sample from the general population". *Achieve of General Psychology*, 44, 69-77.
- Armsden, G.C., Greenberg, M.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llen, J, Moore, C., Kupermine, G., Bell, K.(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1, 1406-1419.
- Bagwell, C.L.(1998). Preadolescents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ion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 Bowlby, J.(1969). Attachment :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 Weiss.(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Chen, X, Rubin, K. H., Li, B.(1997). Maternal acceptance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3(4),

- 663-681.
- Cohn, D.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6 year 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1-162.
- Elkind, D., Weiner, I.B.(1978).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 John Wiley & Song.
- Ladd, G.W.(1983). Social networks of popular, average, and rejected children in school setting. *Merrill-Parmer Quarterly*, 129, 283-307.
- Parke, R.D.(1990). In search of fathers: A narrow of enempirical journey. In I. Sigel & G. Brody (Eds.), *Methods of family research*, 153-188. Hillsdale. NJ: Erlbaum.
- Partson, J.E., Field, J., Pryor, J.(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579-600.
- Sternberg, R.J.(1986). Myth, Counter myths and truths about Intelligence, *Educational Researcher*, 225(2).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